

여대생의 대학생활 적응

College adjustment of Female students

안지연* · 임희경

안동과학대학 유아교육과 · 광주대학교 가족복지학과

Ji Yun Ahn · Hee Kyung Lim

Andong Science College, Kwangju Uni.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much influence home environment and satisfaction degree with a undergraduate major have on female students' college adjustment. For this purpose, 190 undergraduate females participated in and completed all measures, and we analysed the data with SPSS computer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me environment and college adjustment have a positive correlation. Also, the students' satisfaction degree with their majors and college adjustment a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their satisfaction degree with a major wa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what year they are in. Third, the students' college adjustment wa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degree with their majors. Fourth, the female undergraduates' college adjustment wa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home environment.

Key Words : college adjustment, the satisfaction degree with major, family environment

I. 서론

대학생활은 그 시작부터가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고 할 만큼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다.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따라서 때로는 희망과 상관없이 학과를 선택하기도 하고 취업을 위해 전문대학에 재입학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는 현실이다. 통계청(2004)의 자료조사에서도 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의 47.3%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고자하는 이유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 비율은 1996년 37.9%에서 2000년 40.7%, 올해 다시 47.6%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교육의 실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대학생들은 학과와 상관없는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과공부를 뒷전으로 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거나 전과 혹은 편입 등을 고려하거나

심지어 휴학을 고려하는 것이 흔한 현상이다. 한 대학의 통계조사에서도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성문제나 학업고민이 아니라 취업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선미, 2003).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물론 여러 요인의 복합적 영향으로 이루어진 결과일 것이다. 예를 들어 성별, 고교 성적, 지능, 적성 등의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주변 인물들의 영향, 사회 계층의 배경, 교육 제도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천 등의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대학 생활 자체가 전공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전공은 대체로 취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전공만족도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공이 만족스러울 경우 학교생활 적응이 더욱 용이하며 취업 준비를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는 전공 관련 요인 외에도 여러 요인이 관여할 수 있는데 가정생활의 요인은 배제

* Corresponding author: Ji Yun Ahn
Tel: 054) 851-3628, Fax: 054) 851-3628
E-mail: ann@andong-c.ac.kr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중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자신만의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므로 가정환경 혹은 가정생활의 여러 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학력 경쟁이 대학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혹은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대학 교육의 과정에는 비중이 적은 편이다. 또한 대학 교육의 대부분은 취업을 위한 전공영역의 공부로 대표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대학 교육의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적응을 위한 생활지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 결과는 대학 신입생을 포함하여 고학년 여대생들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선, 대학 환경의 개선 등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주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한 대인 생활을 조력하는 각 대학 안팎의 관계자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학교생활 적응을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가정환경 변인과 관련시켜 연구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각 대학의 신입생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의 일부로써 연구되어졌다. 이런 연구들은 전공만족도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응답 비율의 제시에 그칠 뿐 전공만족도나 직업 선택과 같은 취업과 관련되어 다루어지지 않는다는(임용수, 1993).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하면 주로 각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학생상담기관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파악된 자료를 요약하고 있다.

대학 생활은 분명히 중고등학교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발달적으로 볼 때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로 중요하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생활양식이 성인의 생활양식과 유사해지는 과정에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오로지 대학 입시 위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경험해야 할 다양한 정체성의 경험이나 친밀감의 경험 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발달적 과제들은 자연스럽게 대학시기로 미루어진다. 따라서 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여러 가지 적응상의 스트레스나 어

려움 등을 겪게 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입학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지만 대학생이 되면 그런 억압이나 통제가 갑자기 소멸되고 너무 많은 자유가 허용이 된다. 더불어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중고등학교 때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역할 기대와 책임, 자율 등을 요구받으므로 적응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신체적 증상을 유발시키거나(Lustman, Sowa & O'Hara, 1984)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부적응을 야기하게 된다(김은정, 1992). 갑자기 남아도는 시간,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 확대된 대인 관계, 공부 이외의 다양한 활동 기회 등으로 오히려 불안을 느끼고 방황하며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다. 대학 이전까지는 대학 입시라는 유일한 목표를 내세우고 학생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던 우리사회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경제적, 사회적, 학업적 의무에서 그들을 어느 정도 해방시켜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탐색하고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기에 만약 이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잘 확립하지 못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 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자기 발견과 성장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생의 적응 연구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적응에 대한 적응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내부 요구와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화는 한 개인이 사회적, 직업적, 심리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으로 표출되기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다(오영희, 1993).

한편, 대학생활에서 적응은 대학 내에서 제도적, 물리적, 인적 환경과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한덕웅, 전경우, 이창호, 1991). 이러한 대학생의 적응연구는 그동안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여러 요건들은 4년제 대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전문대학생은 입학할 때부터 전공영역을 확실하게 정해서 입학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일부 학부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입학 후 자신의 적성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전공을 확정지을 수 있다면 전문대학생의 경우 입학하기 전에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교육 없이 바로 전공과목들을 이수하거나 교육받아야 한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학생활의 적응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대학생이 대학에서 적응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노력은 필요하며 이러한 조력이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노력이나 앞으로의 취업 준비 혹은 대학생활의 계획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의 적응과 관계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러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다.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전공만족도는 장래 직업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소속된 학과에 대한 만족도등 대학 생활 전반에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전공 선택의 자율성이 부여된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대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대학 생활에도 만족하고 학과생활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경희, 권준모, 1996).

사실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각 대학별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조사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런 전공만족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 가정생활 역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 적응을 다룰 때 가정생활의 적응력을 다루고 있으며, 타지에서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는 학생이 가정생활 역시 만족스럽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종명, 1999).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 변인이 성인기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정환경 변인들이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가정생활과 전공만족도를 관련시켜 고찰하려 한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 남자 대학생보다 더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대학생의 취업현황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취업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녀 학생의 전공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고되지 못했으나(임용수, 1993), 학과 선택의 요인에서는 여학생들이 가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오필호, 이은순, 강순화, 이은경, 1996). 이러한 학교 적응에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 학년별로 학교생활 적응을 연구하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 1학년, 2학년은 3학년이나 4학년에 비해 적응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이 아닌 2년제의 전문대학에서는 1학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적응 상의 어떠한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2학년이 되어 바로 졸업준비 즉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전문대학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년제 전문대학의 학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하였다. 3년제의 경우 신입생으로 입학하고 적응하고

졸업을 준비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다소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려 하였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 적응과 전공만족도, 가정생활 변인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학년별로 학교생활 적응, 전공만족도, 가정생활 변인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전공만족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전공 만족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가정환경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가정생활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자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소재한 A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한 달간이었으며 각 학과의 강의 시간 전에 강의 담당 교수가 배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228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자료 분석에는 190부를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측정도구는 인구 통계적 기본 문항, 5점 Likert 형의 척도로 전공만족도 문항, 가정생활 변인 문항, 학교생활 적응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선행연구(임용수, 1993; 정유미, 김득성, 1998; 이혜령, 2000; 김석경, 2002; 이윤주, 민하영, 이영미, 2004)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기본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제외한 각 문항의 신뢰도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각각 0.83, 0.71, 0.64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거주, 가정의 월수입,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용돈, 동아리 활동에 참여, 종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

준편차,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학교생활 적응도, 전공 만족도, 가정생활 변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학년별로 학교생활 적응도, 전공 만족도, 가정생활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하였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전공만족도와 가정환경 변인의 중앙치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가정환경 변인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각 t-test 를 실시하였다. 신뢰도 계수를 비롯한 통계 처리는 SPSS 12.0 computer program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63.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방 전문대학이므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정의 월수입은 101만원에서 200만원이 41.4%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각각 56.8%, 51.6%로 나타났다. 한 달에 용돈은 11-20만원을 쓰는 경우가 41.1%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73.7%였으며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는 학생이 58.4%였고 종교를 가진 학생이 49.5%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거주	자택	44(23.2)	월 용돈	10만원 이하	36(18.9)
	기숙사	120(63.2)		11-20만원	78(41.1)
	자취	22(11.6)		21-30만원	53(27.9)
	친척집	3(1.6)		31-40만원	15(7.9)
				41만원 이상	6(3.2)
월 소득	100만원 이하	29(15.3)	동아리 활동	참여	140(73.7)
	101-200만원	78(41.1)		참여하지 않음	49(25.8)
	201-300만원	51(26.8)	이성 친구	있음	111(58.4)
	301-400만원	15(7.9)		없음	77(40.5)
아버지 학력	401만원 이상	7(3.7)	어머니 학력	초등학교 졸업	31(16.3)
	초등학교 졸업	24(12.6)		중학교 졸업	57(30.0)
	중학교 졸업	41(21.6)		고등학교 졸업	98(51.6)
	고등학교 졸업	108(56.8)		전문대졸 이상	1(0.5)
전은대졸 이상	14(7.3)	종교	없음	96(50.5)	
종교	있음	94(49.5)			

로 나타났다.

2. 가정생활, 학교생활 적응도, 전공만족도의 관련성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 및 전공만족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정생활, 학교생활 적응, 전공 만족도의 상관

	평균	표준 편차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적응	전공 만족도
가정 생활	32.52	4.59	1.00	0.44***	0.32***
학교 생활 적응	39.52	5.20		1.00	0.62***
전공 만족도	57.93	7.13			1.00

***P<.001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은 상관관계 계수가 .439 (p<.001)로 나타났으며 가정생활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0.317(p<.001)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도는 관련성이 있으며 전공 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도 역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 전공만족도, 가정생활 변인의 차이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전공만족도, 가정생활 변인이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 전공만족도, 가정생활

변인	학년	평균	표준편차	t
전공만족도	1학년	57.64	7.74	- .35
	3학년	58.03	6.16	
학교생활 적응도	1학년	38.35	5.96	-2.94**
	3학년	40.67	5.18	
가정생활	1학년	32.33	4.87	-1.07
	3학년	32.97	4.17	

**p<.05

전문대학의 경우 학과에 따라 2년제 혹은 3년제의 학제로 편제되어 있다. 2년제 학과의 경우 1학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고 2학년이 되면 곧바로 졸업예정자가 되므로 대학생활의 적응이나 만족을 연구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년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전공만족도가 t=-2.93(P<.05)로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3학년이 1학년보다 더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전공만족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났듯이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정도는 약 35%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전공만족

<표 4>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전공만족도의 영향 분석

전공 만족도의 영향	R	R ²	수정된 R ²	B	β	F	t
	.59	.35	.35	.43	.59	88.55	9.41**

**P<.05

<표 5>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

변인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t
전공만족도	높다	41.05	4.70	7.59***
	낮다	35.35	4.16	

***P<.001

도의 중앙치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t=7.59(p<.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 가정생활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가정생활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났듯이 가정생활 변인은 학교생활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정도는 약 19% 정도이다. 또한 가정환경 변인을 중앙치에 따라 가정환경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로 t=5.48(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6>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 영향 분석

가정생활 변인의 영향	R	R ²	수정된 R ²	B	β	F	t
	.44	.19	.19	.50	.44	39.79	6.31***

***P<.001

<표 7> 가정생활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

변인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t
가정생활 변인	긍정적	41.84	4.84	5.48**
	부정적	37.68	4.80	

**P<.05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0명의 경북 지역 A전문대학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의 적응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 및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은 상관관계 계수가 0.44로 나타났으며 가정생활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0.28로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과 전공만족도 역시 상관관계수가 0.62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 이미 성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라도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의 적응이나 전공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요인 중에 가정생활이 개인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여대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지도하는데 또한 전공만족도를 이해하는데 가정의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전공만족도, 가정생활 변인이 차이는 전공만족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 전공만족도는 차이가 있으나 대학생활의 적응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이 올라가면 대학에서의 적응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적응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 간에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신입생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인 대학생활 적응지도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학교생활을 계속해나감으로써 전공에 대한 여러 경험을 통해 좀 더 전공에 대한 이해가 생김으로써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문대학의 특성상 전공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에 더욱 빨리 적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전공만족도가 학교생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를 비교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학교생활 적응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보다 적응적인 대학 생활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가정생활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여대생들의 가정생활 변인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생활에서 가정이 긍정적인 생활을 제공한다면 여대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만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대학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의 학교 적응의 성패는 당사자 본인과 전체 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한 학생은 개인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바람직한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신기술과 신지식을 습득하여 졸업 후 산업 일선에서 우리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적응에 실패한 경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고 대학생 본인과 전체 사회는 유형 무형의 손실만을 부담한다.

최근 교육당국은 학교 적응이 초래하는 이 같은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학교 적응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차원에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적응에 실패하는 대학생의 수는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듯하다. 예를 들어 과거와 달리 여학생의 가정관련 계열 학과의 입학 선호도의 감소와 더불어 적응의 문제 등으로 휴학이나 자퇴생의 수는 증가하는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에서의 각종 종합적인 대학 평가에 대비해 학사 관리를 강화했다 하더라도 제적되는 학생이나 학사 경고 등으로 대학생활을 힘들게 영위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학교 적응의 문제가 지닌 사회적, 개인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당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제안들이 더욱 연구될 필요가 있다 (정현욱, 1996).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한 전문대학의 여학생에게 한정된 임의 표집으로 전문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앞서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대학생활 적응과 전공만족도는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대학생활의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공만족도가 흔히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전공만족도를 대학 생활의 적응과 관련시켜보면 학과마다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개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전공만족도를 높여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요즘은 예비대학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와의 직접적인 만남 등을 주선함으로써 대학 생활에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가정생활 요인이 학교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학생은 한편으로는 성인으로써의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 성인기로 완전히 들어서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가정에 속해져서 가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 상담 등을 통해 가정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대학생보다는 유아동이나 중·고생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생 역시 가정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성차에 따른 대학 생활의 적응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를 통해 대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된 극히 부분적인 변인만을 다루었는데 보다 많은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면 변인들의 상호작용 등을 밝혀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를 얻기 위한 문항의 증가가 응답자로부터 피로로 인한 오용답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 대학 적응, 전공 만족도, 가정환경

참 고 문 헌

김석경(2002).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극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류경희(2004). 창원시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3(2), 195-213.

박선미(2003). 대학생들의 전공과 취업의 연계성에 대한 의식 조사. 영남대학교 통계연구소, 통계처리 상담 사례집.

임용수(1993).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 사회화 과정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 논문집, 8권, 107-129.

이경희·권준모(1996). 대학생의 전공 선택 자율성과 대학생활. 경희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12, 95-112.

오영희(1993). 대학생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513-

이운주·민하영·이영미(2004).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가정환경 변인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논문집, 381-391.

정현욱(1996).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발표자료집. 122-124.

최종명(1999). 청주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0(3), 253-262.

통계청(2004). 사회통계조사.

한덕웅·전경구·이창호(1991). 대학 생활 적응의 예언 요인과 영향 과정. 한국 대학의 생활 환경 변화와 대학 생활 적응. 성균관 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Lustman, P.J., Sowa, C.J. & O'Hara, K.J.(1984). Factor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health: Development of the psychological distres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 28-35.

(2005. 12. 31 접수; 2005. 02. 07 채택)